

-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46호
5월 9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창립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가 연합하여, 국민주권을 지켜간다

국민주권네트워크는 지난 4월 27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게 지켜가기 위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이하 국자연)를 창립하고 기자회견을 함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대표인 이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국가를 사랑하며 또한 큰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우리의 삶이 후에 역사가 되는 것인데, 역사를 잊은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위르겐 모트만은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찾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하여 사명 앞에 서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내일에는 잊혀지지않는 원망을 듣는 조상들이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여 변할 수 없는 가치인 자유정신과 정의를 위하여 행동한 일들을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오늘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국자연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공동대표 임영분 목사(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실행위원장)는 "우리는 진실으로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은 안심하고 국가는 당당하며 정치가들은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 사실적이고 선량한 국민들의 염원은 진영 논리에 얽여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와 헌법정신을 배우고, 전체주



의와 자유주의를 지성의 힘으로 생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도록 시민들이 참여하며, 여민동락(與民同樂)으로 이웃을 섬기며, 자유 시민의 덕목을 확산시키고, 탈 자유민주주의적 불의와 불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주장하였다.

이어서 박성현(자유시민본부 대표) 공동대표는 국자연의 창립선언문에서 "자유 시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한다. 우리가 하나 되어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오늘 우리는 국민주권 자유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일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중시하는 모든 조직과 단체를 연결시키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증진시키고 교류하며, 이를 발전시키며 인맥을 융화하고 성장시켜 나간다. 둘째, 지역별로 자유 시민 연대를 조직해 나간다. 셋째, 지역의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그들이 소신껏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간다.

넷째, 올바른 교육, 문화, 지식, 언론, 뉴미디어를 중흥시키는 운동에 연대한다. 다섯째, 가정과 아동·청소년을 소중히 여기는 성문화, 인권운동, 여성운동을 연대 지원한다. 여섯째, 귀족노조를 극복하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지원한다.

일곱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 에너지 운동에 연대하고 적극 지원한다. 여덟째, 인류보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를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지속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 한다. 아홉째, 자유 시민과 성정의 비전을 복한 주권과 공유하는 역할을 가다듬어 나간다 등이다.

또 국자연의 첫 번째 활동으로 공동대표 조성한 교수(경기대)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 국민을 두 개의 선거단으로 나누는 사전투표제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국자연에서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위헌을 가리는 소송을 위해 100만 명 소송단원을 모집한다고 하였다.

이런 발표 후에 기자들과 참석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국민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는 여러 시민들과 단체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정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게 하며, 유능한 직업정치인을 발굴하고, 지역유권자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하였다.

이날 모임의 사회는 박영아 교수(명지대)가 맡았으며, 현재까지 국자연에는 기독교의 전국 단위 연합 단체들과 개별 단체, 일반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를 아울러, 국민주권을 지키는 활동을 보다 활발하고 본격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안수집사, 권사임직 및 명예권사 추대

코로나19 전염 철저히 방역, 직분자들의 뜨거운 충성과 헌신 열매 맺어

안동성곡교회



담임 강대진 목사

안동성곡교회(담임 강대진 목사)는 대구경북지방회(회장 도사현 목사) 주관으로 지난 4월 25일(토) 오전 11시 동교회 대성전에서 집사, 권사임직 및 명예권사 추대 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안수집사 1명, 권사 7명, 명예권사 2명)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사(주전양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부회장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대표기도, 청주이가페교회 이광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광신 목사는 고전 15:8~10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 각 교단과 소속된 지방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안동성곡교회는 코로나19의 전염을 철저히 방역하면서도 모임을 합심하며 귀한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예배의 자리를 마련한 교회이며 그 직분자들의 충성은 매우 귀한 것임을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선포하였다. 또한 귀한 직분을 받는 성도들은 더욱더 충성하게 되기를 축복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방역하며 모이기에 힘쓰

귀한 직분자들의 헌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

설교 후 강대진 목사의 주관으로 임직 및 추대식을 진행하였고 임직식 중 대구경북지방회 임원목사들이 안수위원으로서 안수를 하였다.

임직 및 추대식이 끝난 후 증경지방회장 진영갑 목사(주전양교회)와 김영준 목사(울진갈릴리노소방교회)의 권면이 있었고 본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새김전교회) 축사가 있었다. 회계 정인철 목사(상

주반석교회)의 기도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진 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순서를 모두 마쳤다.

그 후 안동성곡교회에서 준비한 식사 장소로 이동하여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치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사역지로 향하였다.

동성애 쿼어 행사가 시민의 건강보다 중요한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달 24일, 6월 12~13일에 예정된 동성애 쿼어 행사를 하라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온갖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는 동성애 집단 행사를 하라하는 것이다.

광장 사용에 관한 것은 서울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올해는 서울시인 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의 권고를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행태로 이뤄졌다고 한다(지난해9월 26일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 시설 담당부서에 지도·감독을 철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행사가 6월로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상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보통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 소멸되었다고 보려면,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병원균의 잠복기인 14일의 두 배가 넘는 28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그날 만도 100명이 나오고, 전체 확진자가 9,137명이나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다. 동성애 쿼어 행사가 열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정부가 그렇게도 주장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동성애 행사 강행이 시민들의 건강보다도 중요하고 국가적으

로 꼭 필요할 정도로 긴급한 일인가?

이미 동성애에 대한 반가정적,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부정적인 측면은 온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터이다. 또 서울시민들의 재산인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쿼어 행사에서의 각종 위법성은 여러 차례 진행되는 가운데 이미 드러난 상태이다.

더군다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하루하루를 질병과 죽음의 불안, 질병 확산의 공포는 물론,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이런 결정을 강행한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서울시의 동성애 쿼어 행사 허락이 '조건부'라고 하지만, 서울 시내의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는 예배를 제한하며, 7-8가지 조항을 붙여 겨우 예배를 허용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헌법에도 위반되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성애 행사는 흔쾌히 허락하는 서울시의 처사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일본은 7월에 예정된 지구촌 전체 축제인 하계올림픽까지도 1년 연기한 상태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시민을 둔, 서울시가 동성애에 대한 관대한 행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동성애 쿼어 행사 허락을 취소하여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어야 하며, 온 국민이 숨죽여 동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용목 목사

'아주 특별한 사람'

"아그림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행 26:28,29)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분류한다면 의인과 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천국 시민과 지옥자식,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 등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보통과 구별되게 다른 것을 가리키며 대체로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속이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소속의식이 확고부동하고 자기 소속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소속에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소속은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멸망과 구원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 구원과 멸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소속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소속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심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 주심을 믿고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서 주님의 인도와 결정에 맡깁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그의 선하심과 무궁한 지혜로써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 주심을 구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익하거나 해롭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위하여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막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고전 10:31)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써서 살아갑니다.(고후 5:9)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특별한 소속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소속의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복 주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체임이며 우선이며 중심입니다.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우리 주변 친척·지인 중 신천지 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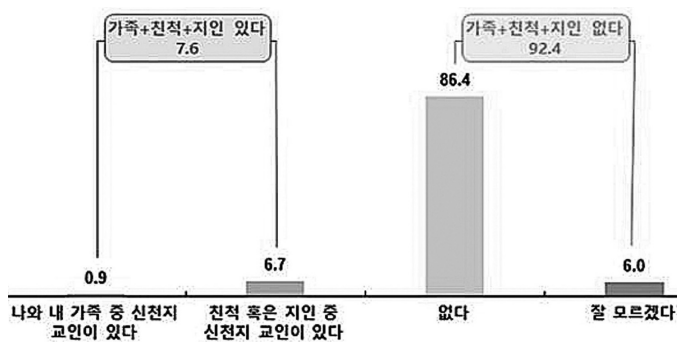
전국 남녀 1000명 대상 신천지 인식조사 결과 발표

CBS 기독교방송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18세 이상 개신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6.0%가 신천지로부터 전도 등의 접촉 경험 있다고 응답해 그간 신천지의 포교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가족 중에 신천지 교인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0.9%, 친척 혹은 지인 중에 신천지 교인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7%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천지 접촉도는 연령별로 20대가 33.7%로 가장 높았고, 가나안 성도(19.2%)보다는 교회 출석자층(28.2%)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0.8%)과 광주전라(31.9%) 지역에서 높았다.

응답자들은 신천지인이 이탈할 경우 한국 교회가 받아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65.9%가 받아줘야 한다고 응답했고,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로 신천지 이탈자가 올 경우 받아줘야 한다는 응답이 64.4%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신천지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응답자 82.1%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 관련 범 기독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한국교회가 가장 주력해야 할 활동으로는 교회와 가정의 실태 파악이 30.9%, 교리의 이단성 고발이 19.9%, 청년 대상 포교실상 폭로 및 예방이 19.8%로 뒤를 이었다. 신천지 이탈 촉진과 이탈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6%로 나타났다.

그동안 기독교 언론들이 신천지와 관련해 보도한 내용들에 대해 71.1%가 '일반 사회에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알려준 것'을 긍정적인 역할로 꼽았고, 신천지 내부적으로 타격을 준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위 설문조사는 4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한기총과의 통합 추진 작업 중단 결의

한교연,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4월 27일(월)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경제 회복 리조트에서 열린다. 이번 수련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금 모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금 모금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투명한 단체를 선정하는 등의 세부적인 문제를 대표회장장과 상임회장단에 위임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경제난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가난한 이웃과 농어촌교회 미지림교회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럴 때 한국교회연합이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상위 30%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1천만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난한 이웃,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노숙인과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한국교회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부금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투명한 단체를 선정하는 등의 세부적인 문제를 대표회장장과 상임회장단에 위임했다.

대기본-국발협, 제주도 수련회

교단·단체·교회·성도 위한 수련회

2020년도 기독교 각 교단, 단체, 개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하기수련회가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1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도 '블루하와이 호텔 및 리조트'에서 열린다. 이번 수련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금 모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금 모금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투명한 단체를 선정하는 등의 세부적인 문제를 대표회장장과 상임회장단에 위임했다.

수련회와 관련 기도운동본부 관계자는 "행사를 제주에서 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자제, 교회예배금지, 단체행사 및 모임금지, 영상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너무나 위축되고 답답한 생활들을 해왔기에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며 저녁시간에는 유명

강사를 통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강사로 내정된 최남수 목사(의정부광명교회)는 "그동안 외부 행사 강의를 자제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개척교단과 한국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 강의를 결심하게 되었다"라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방향과 부흥 성장, 성도들의 신앙과 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3일간 저녁시간을 통하여 특별강의를 한다"라고 밝혔다.

수련회는 700명으로 제한하며 이미 300명이 등록을 마쳤다. 참가비용은 3박 4일 동안(왕복 항공권, 숙식, 강의료, 여행비용 일체

등) 다른 경비일체 없음) 1인당 199,000원으로 책정을 했다.

기도운동본부는 "부족한 금액은 기관, 종교단체, 개인 등의 후원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왕복 항공권값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번 기회에 중·소 교단, 개별교회, 단체, 기관, 남녀 전도회, 청년부, 학생회, 노회, 지방회, 시립회, 개인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했으면 한다"며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말굽과 기도운동의 불씨를 살려 한국교회 전체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사렛대학교 전교직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

교발전을 위해 십시일반 학교발전기금 조성

에 동참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나사렛대학교를 포함,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입학지원 감소,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사렛대학교 구성원은 대학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학교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14억5천만 원에 이어 올해도 7억4천여만 원(전임교원 5억6천만 원, 직원 1억8천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 대학 경쟁력 확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온라인 이사회 열고 제14대 회장 선출

북미주 한인기독실업인회(KCBMC), 배현규 회장 선임

북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회(이하 KCBMC)가 지난 4월 24일(금) 온라인을 통해 이사회를 열고, 제14대 회장 및 이사장에 현 배현규 수석 부회장을 추대하기로 했다.

KCBMC는 차기 회장단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차기 수석 부회장에는 한기덕 현 감사 이사를 선출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KCBMC는 ZOOM 비디오 미팅을 통해 이사회를 진행했으며, 13회기 4자를 맞은 이번 회의에서 29명의 재직 이사 중 27명이 참석해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30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재정 감사보고 및 재정 보고가 있었으며,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정관 개정에 관한 보고와 토의도 이뤄졌다. 정관 개정 투표는 오는 9월 이사회에서 갖는다.

KCBMC는 현직 수석 부회장을 다음 회기 회장으로 자동 추대하고 있다. 이에 14대 회장/이사장은 배현규 현 수석 부회장이 맡게 된다. 차기 수석 부회장에는 한기덕 감사 이사가 뽑혔다. 14대 회장단 및 이사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한편 KCBMC는 올해 열기로 했던 제25차 북미주 KCBMC 필라델피아 대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연기, 내년 6월 24~26일 개최하기로 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위해 사용해 달라”

평기총, 평택시에 코로나19 지원현금 전달

평택시 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기길선 목사/이하 평기총)는 지난 4월 22일(수) 오후 4시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 대외협력실에서 평기총 총회장 기길선 목사 사무총장 남기수 목사, 교행위원장 송주석 목사, 서부지역회장 심재학 목사, 북부지역회장 송주석 목사, 언론홍보위원회 한상욱 위원장 등 11명의 목회자와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부활절 현금 500만원을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전달했다.

총회장 기길선 목사는 전달식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신속히 소멸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 당부했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기총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신종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평택시내 교회들이 인터넷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린다”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신속히 소멸되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기총 서부지역회(회장 심재학 목사)는 지난 4월 12일(주일) 교회연합 온라인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3백만 원의 현금을 모금, 남부지역회(회장 주정환 목사)와 북부지역회(회장 송주석 목사)가 각각 100만 원을 모금하는 등 총 500만원의 현금을 평택시에 전달했다.



CTS,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를 시작하다!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CGS) 평택 개교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CGS) 평택(공석원 이사장) 기독교대한학교가 지난 4월 6일(월) 10명의 학생들과 함께 평택성결교회에서 개교했다.

CTS기독교TV(이하, CTS)는 기독교 신앙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16년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CGS)'를 노량진 사옥 9층에 개교했고, 기독교대한학교 설립 및 운영 노후를 중·소형 교회에 제공해 왔다. 한편, CTS는 작년 3월부터 '한교회 한학교(One Church One School) 세우기' 캠페인을 펼쳐며 본격적으로 기독교대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교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1월 '다음세대 지원센터(정기원 센터장)'를 설립해 기독교대한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CGS 교육목

표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를 한국교회에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제1호 학교로 'CGS 평택'이 개교했고, 4월 27일(월) 개교 감사예배를 드렸다.

CTS 감경철 회장은 개교 감사예배에서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의 위기를 겪고 있

므로 기독교 정신의 학교를 설립할 경우 다음세대의 새로운 부흥이 가능하다”며, “CGS 평택과 같은 학교가 계속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이 대한민국에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잠비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4만 불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방호장갑 전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물품 부족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큰 아프리카 지역에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 한국의 국제구호개발 NGO가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잠비아 보건부에 4만 불(한화 500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보호장비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아대책은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윌버 치시아 시무사(Wybur Chisiya Simuusa) 주한잠비아대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9일(수)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한잠비아대사관에서 물품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물품 지원은 주한잠비아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우리 나라가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듯 잠비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도 곧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격려했다.

기아대책은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윌버 치시아 시무사(Wybur Chisiya Simuusa) 주한잠비아대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9일(수)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한잠비아대사관에서 물품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물품 지원은 주한잠비아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우리 나라가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듯 잠비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도 곧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격려했다.

헌신과 희생으로 화합할 것 다짐

광주지방회 정기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4월 16일(목) 오전 11시 순복음복원교회(최정식 목사 시무)에서 '제60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길수 목사의 사회로 회계 배영래 목사의 기도과 서기 김영호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최정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마 5:13-16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가 다가올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소금과 빛의 교훈처럼 광주지방회가 헌신과 희생으로 화합하는 지방회와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총회와 지방회



를 위해 박우진 목사가 특별기도하고, 김정순 목사의 헌금기도와 교단 증경총회장 김영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정기지방회는 회의 순서에 따라 서기목사의 회원점명과의장 최정식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각종 업무보고 및 회부처리를 마치고, 임원선출을 통해 회장 최정식 목사(복원교회), 부회장 조은주 목사(참좋은교

회), 서기 배영래 목사(엘림교회), 재무·회계 김정순 목사(은혜의복음교회)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이어 새로운 회기 사업계획안 및 예산심의와 기타 안건 등을 결의 채택하고 폐회 중 의함으로 회의를 마치고 회장 목사가 제공한 오찬(풍천장어)을 나누며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제일교회 김희수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4월 26일(주일) 오후 5시 순복음제일교회(담임 김희수 목사)에서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광호 목사(한리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회계 박종석 목사(벤엘전원교회)의 기도와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좋은나무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행 16:6-10 말씀을 본문으로 '사역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여 마케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담임목사 이·취임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며 주어진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어 지방회 서기 김선식 목사(하늘소망교회)의 헌금기도와 회장 유관영 목사의 인도로 김희수 목사를 순복음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공표하고 중사를 전달하였다. 지방회 증경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축사 후에는 당일 순복음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희수 목사가 전임 최강욱

목사에게 공로로 전달을 하여 그동안 충성스런 목회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공을 세운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회장 유관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순복음제일교회(담임 김희수 목사)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며 교제 시간을 가졌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부산지방회 정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순남 목사)는 지난 4월 23일(목) 오전 11시 순복음반송교회(담임 한순남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나라와 교단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은혜 목

사(순복음빛진교회)의 사회로 한석현 목사(순복음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 재무 김병주 목사(순복음영남교회)의 성경봉독, 증경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마 16:15-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 회계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

회)의 헌금기도, 증경지방회장 한명집 목사(은혜와평화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지방회에서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임원 선출에 들어가 신임원을 선출했다.

신임원진 명단은 회장 고영권 목사, 부회장 김경옥 목사, 총무 강광수 목사, 재무 홍찬일 목사, 회계·서기 정현무 목사.



부산동지방회 정기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4월 23일(목) 오전 11시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정화 목

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박영옥 목사(순복음침종은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요 4:19-30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가 충만

하면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으므로 말세지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감당하는 부산동지방회원들이 되자"고 전했다. 설교를 마친 후 통성으로 기도하고 재무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의 헌금기도,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지방회는 정영진 목사의 진행으로 각종 보고 및 예산 결산 등 회계보고를 마치고 임원선출에 있어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현 임원을 그대로 연임하기로 박수로 통과시켰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 부회장 박영옥 목사(순복음침종은교회),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 회계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 재무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

감사선출 및 기타사항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신 유봉수 목사의 기도로 정기지방회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순복음갈릴리교회 정영진 목사가 제공한 식사를 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아산 민족복음화와 지역발전, 나라 위해 기도

종교재편 운운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동성애관련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아산지역 기도회 및 당선인 축하예배



진동웅 목사
아산시민종교융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아산시민종교융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는 지난 4월 23일(목) 오전 7시 온양제일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민족복화와 지역발전과 나라

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 및 21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예배를 드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당선자들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당의 종교재편 운운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동성애관련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등 국민과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들을 막아 줄 것을 강조했다.

부회장 정병환 목사의 대표기도 후 총무 정진하 목사의 성경봉독, 고문 강상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마 6: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당선된 분들을 축하하며 무엇보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라가 한 번 잘못된 길로 나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기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사랑과 겸손함으로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고

악법 등을 막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삼가줄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본부장 이두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축하순서로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가 당선자에게 축하패를 증정했으며 아산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의 축사, 신상우 목사의 축사, 상임회장 박기환 목사의 격려사, 고문 김소윤 감독의 권면으로 축하순서를 마치고 김희복 아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로 이어져 '민족복음화와 아산시 성시화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 '아산시 지도자를 위해',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제정금지를 위해'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 고문 임기석 목사,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 공동회장 온재현 목사, 부회장 장현원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참석자들은 조찬을 함께 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하고 공의와 겸손의 리더십을 당부했다.



아산민족복음화운동본부 주최 아산지역 기도회 및 당선인 축하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자

경기남지방회 정기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4월 20일(월) 오전 11시 벤엘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김진태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지방회 총무 서경오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남수 목사의 기도, 배길선 전도사의 성경봉독, 그리고 사모의 은혜로운 특송,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사 41:10-13 말씀을 본문으로 '복 받을 기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 풀랑 인연하여 더 빨리 건너는 잔송 가져달라"고 주님과 가까이 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광우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여 회부 및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 제9차 신임 임

원으로 회장 김기인 목사, 부회장 박용열 목사, 김남순 목사, 총무 서경오 목사, 서기 서성영 목사, 재무 김진현 목사, 회계 표한자 목사를 선출하였다.

이어 벤엘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만찬과 돼지고기 햄, 정세창 목사의 머릿기름 등을 섬김으로 감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아산지역 기도회 및 당선인 축하예배 광경 (아래). 아산갑을 선거구 당선자 이명수 국회의원과 강훈식 국회의원을 축하하는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위).

생명의 말씀



김 양 인 목사

· 교단 중경총회장
· 순복음평신학교 학장 역임
· 목양제일교회 담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는 실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도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전 13장에서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크고 귀한 은사라고 하면서 사랑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방언의 은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은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신령한 비밀을 밝히려는 것은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의 예언이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고전 13:1-13)

있어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월감에 빠져 남을 멸시하기 쉽습니다. 그 뿐 아니라, 구제의 은사가 있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이라면 참된 구제라고 할 수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사랑은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기 만족과 사랑을 혼동하고, 소유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담장에 심판하지 않고 시고 화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바로 이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2) 사랑은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친절할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3)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란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시기하면 안 됩니다.

4)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

랑하는 것은 상대보다 자기를 높이는 행위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칭찬하고 높입니다.

5)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6) 사랑은 무례히 행지 않습니다. 무례한 언행은 사랑으로 행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7)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지 않고 도리어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8)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못 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실수가 실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9)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10)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11)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의 편에 섭니다.

12)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모든 모욕과 고초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13)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의 말을 믿어줍니다.

14) 사랑은 모든 것을 바칩니다. 도저히 감이 없어보이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를 갖습니다.

15)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핍박을 견뎌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부모들이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사랑의 힘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한편, 이 같은 사랑을 하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임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참된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언가 나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나의 언행을 비교해 보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팔자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단히 사랑하는 연습을 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완전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첫째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했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룩해서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지라도 그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적 지식은 완전해 질 것입니다. 마치 환한 대낮에 밝은 태양빛 가운데서 보듯이 선명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제일 귀합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게 될 것이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업적을 중요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사랑함으로써 사랑에 기쁨을 만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관이라면 적어도 성경에 반하는 것을 옹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NCKK는 과거 민주화를 위한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NCKK 인사들과 성직자들이 진보 정권에서 정치와 결탁하여 여러 요직에 나가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을 띠며 ‘정치화’에 발을 들여 놓고 있어, 선교를 위한 선교기관 정신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NCKK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 정부·여당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국 기독교의 입장을 헤아려 보기 바란다. 정권에 아무라도 하듯이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한국교회에 위해(危害)를 가하게 될 막강한 정권과 권력을 견제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디 살피시기 바란다.

동 정

성결대, 신임 총장에 정희석 교수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은 지난 4월 20일(월) 이사회를 열고 성결대학교 제9대 총장에 정희석 교수(경영학과)를 선출했다.

법인이사회는 신임총장 선출을 위해 지난 3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임총장 후보자 접수를 받았으며, 4월 7일 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한복련, 5월 초찬기도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대표회장 최이우 목사)는 지난 5월 8일(금) 오전 7시 총무성결교회(담임 성창용 목사)에서 5월 월례초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체되어가는 가정체계, 한국교회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려 임원단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등이 발표했다.

말알선교단, 조봉희 신임 이사장



한국말알선교단 6대 이사장에 조봉희 목사가 취임했다. 지난 4월 21일(화) 본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6대 이사장에

취임한 조봉희 목사는 “말알의 사명은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말알이 땅속으로 들어가듯, 현장 중심으로 섬기겠다.”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한남대, ‘재택 실습 교육지원’



한남대(총장 이광섭)가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면서 실험장비와 실습교구를 집으로 배달하는 ‘재택 실습 교육지원’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강의형 수업은 동영상강의나 화상 교육이 가능했지만 실험실습 수업은 실습지나 실험도구, 실험재료 수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노평

한국교회언론회

NCKK, 정신 차리십시오!

제21대 총선이 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다음 날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윤보환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속히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였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와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민들의 저항으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즉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 가운데 ‘독소조항’이 들

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3년 국회의원 66명(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이 발의하여 만든 법안에 보면, 대략 5가지의 독소조항이 있었다. 즉 동성애, 트랜스젠더, 전과, 사상과 정치적 의견, 종교에 관한 것이다.

매우 민감하면서도 현 헌법(憲法)과도 위배되는 사항들이며, 기독교를 옹호하는 내 용이기에 국민들과 기독교계에서는 반대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NCKK가 이런 주장을 하더니 이해하기 어

렵다.

이 단체는 한국교회 9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성교회 대교구, 기독교한국루터회)가 가입된 단체이며, NCKK의 소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가정을 해체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기관으로 부활된 견해인가?

NCKK는 1987년부터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면서, 2014년 제28회 인권상 수상에서는 동성애자이며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도 상을 준 일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교회를 대표하는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온마사지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향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워터그린오일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통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 (운동전후운전시/수험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구주소나무오일,유향유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발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사이버터, 마가데미아넛오일등

⑨ 젤케어 림밤 (15ml)

인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사용법 : 인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원재료 : 전나무워터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목양시사 / 성별변경 간소화 반대 살림 나비

대법원의 성별 변경의 간소화 반대

대법원은 양성 성질서 한법 지체 제3의성 법제화' 등 급진문적 성관습을 배척해야 한다.

김평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 이 간소화 조치는 최근 성전환 수술 뒤 재입대의사를 밝힌 B씨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자 A씨 논란에 대응한 포퓰리즘적 행정이다. 성전환 수술 없이, 즉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판결을 대법원이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는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이하,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고 2월 21일 발표하였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별 정정을 위해선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2019년 4월 인천지방법원은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체완전성에 대한 손상 및 생명의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하급심의 판결과 급진적인 젠더주의 발생과 같은 급격히 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사법지원실과 가정법원 판사, 등기국사법심의관 등 판사 9명으로 구성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제도개선 연구단'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는 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며 "예규 해석이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어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2020년 2월부터 대법원은 지금

점, 기존 전환된 성별로 장기간 살아온 점, 미성년 자녀가 없고 혼인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은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해 준 것이다.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과 판례(대법원 2006.6.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결정)는 양성의 성별 체계에 기반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성전환 수술'과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감정서'의 제출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2006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 정정을 허용하면서도 법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수술 의사의 소견서, '앞으로 생식능력이 없다'는 전문의 감정서, '2명 이상'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 5가지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의 새로운 예규는 '2명 이상'이라는 구절을 삭제하여 전문의 감정서나 성장환경 진술서 등은 1명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또 서류들은 '필수 제출'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 결정은 지금까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고,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한다.

3. 트랜스 젠더, 간성 등은 비정상적 성적 상태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간주해서 법제화할 수 없다.

오늘날 급진적 젠더주의-젠더 이데올로기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 대신 사회적 젠더(gender)를 수용하여 스스로 선택한 성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하라는 기존 법제와 충돌되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 남성이 심리적으로 여성화되거나 반대로 생물학적 여성이 심리적으로 남성화되어 성별 변화를 요구하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호르몬의 과다분비로 다른

것이기 보다는 판사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임의로 바뀔 수 있게 된다.

6. 대법원의 예규개정은 다음 4가지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게 되면 결국 대법원의 기존 결정의 변경(성별 정정의 간이화)으로 나타나게 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갈등이 극심할 것이다.

첫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가정이 해체된다.

현행 합법은 혼인을 한 명이 남자와 한 명의 여성의 결합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성별을 나누는 기준이 바뀌면 온갖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전통적 가족관계손손, 이모, 사촌, 조카 등이 무너지는다.

둘째, 사회를 유지하는 윤리 및 도덕이 무너진다. 사회를 유지하는 윤리 도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을 구성하는 결합 요소가 바뀌면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게 된다. 여성 목욕탕에 남자 성기를 만 여자, 남성 목욕탕에 여자 성기를 만 남자들이 쏟아지면 우리 사회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위험과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사회체제가 바뀌게 된다. 사회 기본 단위의 가정이 바뀌면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구성된 모든 사회체제가 바뀌게 된다. 병역 의무, 스포츠 경기, 사회문화도 모두 바뀌게 된다. 동성혼을 포함한 모든 결합이 허용되며, 동성애, 근친상간을 포함한 모든 성관계가 허용되는 성 평등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5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비정상적 불온의 가족과 가정이 존폐하게 된다.

젠더이데올로기가 교육정책에 침투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성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교육관으로서 성별이 남녀 양성뿐이라 주장했던 학생이 '성차별주의자'로 정학·퇴학을 받아 성윤리 가치 체계의 혼란, 표현의 자유의 탄압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사회 기본 단위의 가정이 바뀌면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구성된

모든 사회체제가 바뀌게 된다. 병역 의무, 스포츠 경기, 사회문화도 모두 바뀌게 된다.

동성혼을 포함한 모든 결합이 허용되며, 동성애, 근친상간을 포함한

모든 성관계가 허용되는 성 평등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까지 필수서류로 요구했던 성전환 수술서류를 참고용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는 성전환에 대해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통한 치료의 사례 보고,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수술 이후에도 우울감에 시달리는 정신의학계의 사례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진지한 고려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이것을 허용한 서구(西歐)사회에서는 여성과 아동 대상으로 불법 촬영, 여성폭행, 등 성범죄가 급증했다. 또한 '동성 결혼'을 사실상 허용해서 일부일처제 가정을 붕괴시켰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오늘날 구미(歐美)에서 유행하는 젠더주의의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남녀 구분을 파괴하는 지침을 만들어 동방예의 지국인 우리 사회의 규범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살림나비는 이에 대하여 결연히 반대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같이 밝힌다.

1. 김평수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오늘날 서구(西歐)에서 들어온 젠더이데올로기적 성혁명을 추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가능케 만드는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젠더이데올로기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조치이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사람의 성별(남녀)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주어진 생물학적 성(sex)에 따라 나누지 않고, 남녀 외 51개 이상의 다양한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임의로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이데올로기는 타고난 성(sex)을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성(gender)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일부일처의 가부장 가족 제도, 그리고 가정과 성별의 개념을 해체하여 재구성하려는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의 영향을 받은 문화혁명이다.

2.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헌법과 대법원 판례의 남녀 양성 구분 지침은 가족과 성별 제도의 기반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어지며,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음으로써 사회를 유지시킨다. 이러한 남녀 양성 구분은 대한민국 헌법의 혼인과 가족제도(제38조)의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런데, 타고난 성별에 귀속감을 못느키는 성전환증에 대해 상당기간의 정신과 상담, 호르몬 치료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성전환수술을 받은

외모를 가진 간성(intersex)을 자연스레 수용함으로써 성별 변경의 간이화, 제3의 성 법제화라는 급진론을 제기한다. 왜?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시적 유행인 서구 급진적인 젠더이데올로기를 깊은 연구와 공경화도 없이 수용하는가?

4. 성별 전환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외과적 수술 없이 성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및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

대법원이 2020년 2월 갑자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성별 전환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04.스42, 2009.스117)에 반하며,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수술 의사(醫師)의 소견서와 2인 이상이 아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감정서 제출 원칙을, 재판부가 필요한 경우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제출 요구 인할 수도 있는 참고용 서면으로 변경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이 자신들이 정한 지침을 명확한 법적인 근거나 학문적인 근거도 없이 사회의 서류를 따라가는 하급심의 판결에 편승하여 개정한다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진영논리가 팽배해 지고 있는데, 대법원의 이러한 지침 개정마저도 진영논리에 의해 한국사회 전체의 성 윤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대법원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한국사회의 법적인 안정성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5. 성평등주의에 입각한 성전환 완화시도에는 다음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급진적 젠더주의가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 성전환 신청서 필수 첨부 서류를 대폭 완화시켰다.

둘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위배되는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대법원 스스로가 단행했다. 청소년의 성전환 신청서 부모의 동의 필수 조건이 삭제(2019년 8월)되었다.

이렇게 되면 젠더주의에 찬성하는 판사들이 임의로 성별정정을 하도록 개정할 수 있게 된다. 판결이 헌법적 정신에 근거한 엄격한 양성 결혼의 윤리에 입각한

이런 대법원의 젠더주의적 조치로 한국사회에서도 남성 성기를 달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성별에 따라 구분된 공공편의시설인 여성샤워실, 여성화장실에서 남성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출입으로 여성들이 사용에 큰 불편과 두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여자 격투기 시합에서 생물학적 남성으로 여성화된 참가자와 겨뤘던 여성이 사망하는 예 등은 그 일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급진적 젠더주의자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주장과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변경에 따른 혼란과 갈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7. 성별 정정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단행한 대법원은 개정을 철회하고 사과를 표명하라.

기존 대법원 판례상 성별 정정 기준을 이루던 논의나 설명도 없이 완화시키는 위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단행한 대법원은 변하는 사회현상에 발맞추려는 취지라고 말하나 이는 시대의 병리적 현상에 따라가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를 즉각 버리고 위 지침의 개정을 철회하며 법원행정처의 진정어린 사과를 표명하길 촉구한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16일 위 지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대법원 행정처는 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살림나비도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적극 동참하여 위 지침의 개정 철회에 앞장설 것이다.

8. 한국교회 성도들과 시민사회는 대법원의 급진적 젠더주의의 진영논리에 따른 개정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자연적인 생물적인 성의 정정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을 국민적인 토론이란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하는 대법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대법원 독재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인 성질서가 사회질서와 혼인질서의 근본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힘을 모아 대법원의 잘못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성윤리가 점점 무너져갈 때 이 사회는 비윤리적이고 자연적인 성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20년 3월 9일

살림을 꾸꾸는 나비행동

목회자 평생교육

정영진 목사 //유대 예하성 목회자평생교육위원
순복음갈릴리교회 담임, 교단 서기



유대인들의 교육방식 하브루타

우한 폐렴으로 인해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정형화된 교육은 교사가 강의하고 학생은 '듣고 외우고'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의 심각한 문제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교사의 강의를 요약하고, 교과서에 있는 정답을 외워 시험을 치르는 교육이므로 외우는 것은 할 줄 알아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한 폐렴은 이러한 교육을 더욱 가중시켰다. 사람과 사람의 격리를 통해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교사의 강의를 듣고 과제물로 성적을 평가하다 보니 학생의 주관적 생각은 없고 '듣고 외우'는 교육으로 일반화되어 버렸다. 생각해 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었는가?

한국인은 평균 지능지수가 106으로 세계 최고의 IQ를 자랑하고, 공부 시간도 최고 교육열과 교사 수준도 기하 세계 최고이므로 당연히 한국인이 세계적인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하고,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아야 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전 세계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등 사회 전반의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인 경우가 많다. 유대인은 전체 세계 인구 중에서 고작 0.2% 밖에 안 되고 평균 IQ 94로 세계 45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나치독일 시대의 탄압과 학대를 견디고, 노벨상 수상자만 무려 전체 수상자의 23% 이상을 배출시켰고 미국의 인구 중 2% 만으로 억만장자 40%를 차지하며, 미국 아이버리리그대학 비율을 놓고 보아도 한국인은 1%도 될까 말까 하지만 유대인은 20%의 비율을 자랑할 정도로 아이버리리그 출신이 많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교육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하브루타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브루타(Chavrutah)는 친구, 짝, 동반자(파트너)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버(Chaver)'에서 유래된, 유대인들의 오래된 학습법으로 짝을 지어 서로 간에 질문하고 대화하고 논쟁하며 공부하는 학습법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 율법인 토라(Torah)를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 서로 간에 질문하면서 생각을 나누었다. 뿐만아니라 하브루타는 '탈무드' 연구에 잘 적응 되었다. 탈무드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율법을 모은 '미쉬나'와 랍비들이 오랜 기간 이를 토론하고 해석해 만든 '게마라'를 모은 책이다. 6세기 초 바빌로니아에서 나온 탈무드만 해도 63권의 방대한 분량이다. 탈무드는 원전의 많은 양과 다양한 해석을 갖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하브루타식으로 친구, 형제지매, 부모님, 선생님 등 나이가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은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내 스승이고, 또 내가 친구의 스승이 되어 유대인들을 토라와 탈무드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브루타에서 중요한 것은 'Why?'이다. '왜?'라는 단어에는 'How'도 포함된다. 수많은 궁금증을 통해 알아가고, 새로운 생각과 논리적 근거를 쌓아나가며,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며, 더 붙어 사고력이 커지며, 창의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방대한 토라와 탈무드를 읽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토론함으로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신앙을 길러가는 것이다.

아시아(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이다.

안식일은 전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안식일 하루는 유대인들

이 하브루타를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날이다. 식사와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독서하고 묵상하고 가족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다. 그들 가정에서 토라와 탈무드에 대하여 또 다른 이슈(Issue)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토론한다. 아이는 부모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 부모는 진지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고 사는 세계 유일한 민족이다.

이러한 하브루타의 효과는 첫째, 교사가 학생에게 강의하고 시험을 통해 정보를 암기하고 주입식, 암기식 학습과는 달리, 하브루타는 학생들이 동일한 이슈(Issue)를 서로 나누고 상대의 논증에 오류를 찾아내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 질문하면서 자신의 세계(지식, 사고, 고정관념 등)에만 고집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된다.

둘째, 하브루타는 학생들이 배움에 집중하며, 추진력을 날카롭게 하고, 생각을 말로 발전시키고 논리적인 논증으로 그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은 또한 모호하게 유지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정밀성과 명확성을 부여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경을 심어준다. 하브루타를 방해하는 것은 예외에 어긋난다고 여겨진다. 하브루타와의 관계는 또한 그의 하브루타에서 실망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노력을 강화한다.

셋째, 질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대해 반박할 필요와 노력을 치열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하브루타는 세상의 모든 대상과 사물에 대해 치열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넷째, 하브루타 교육협회에서 나온 "노벨상 30% 유대인 교육의 비밀, 하브루타"에 의하면

현재 세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창 의성이다. 하브루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탈무드 자체가 랍비와 현자들의 토론과 논쟁집인 데, 그런 대가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하고 다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하브루타의 특징이다. 토론과 논쟁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만든다. 당연히 생각하는 것까지도 뒤집어 생각하게 한다. 상대방의 의견과는 다른 나만의 견해를 가져야 토론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토론에 이길 수는 결코 없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나만의 생각, 새로운 생각, 남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

또한 하브루타는 아무리 실력을 갖추어도 그것을 인간관계에 통하여 풀지 못하면, 그것은 써고 만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전혀 쓸모가 없다. 하브루타 자체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저절로 생기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여자 김금선의 책에서 '남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은 더욱 주입식, 암기식으로 되어 가는 것을 보며 안타깝다.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가 교회로부터 예하성 목회자 평생 연구 원으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없어야”

베이비버스 키키&묘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에

이동용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계훈)은 지난 5월 4일(월) 서울 중구 무교동 어린이재단 본부에서 베이비버스의 한국 사업을 총괄하는 (주)나문컨퍼티비(대표 김희연)와 협약식을 열고, 베이비버스의 캐릭터 키키와 묘묘를 신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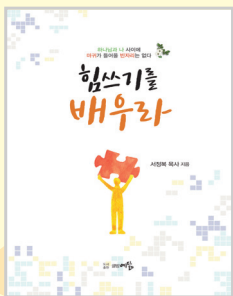
베이비버스는 144개국에 19개 언어로 선보이는 몬테소리 기반 교육 콘텐츠다. 유튜브 영어 채널 구독자 1,480만명, 한국어채널 구독자 411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 평균 1억 뷰를 기록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키키와 묘묘는 국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원자 개발 및 모금 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에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친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두 번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무언고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과 자립을 돕는 '폼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화제의 신간 / '힘쓰기를 배우라'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자 서정복 목사의 신간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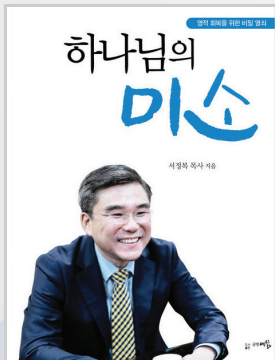
동이트는 새벽, 시린 손 호호불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하는 남원중앙교회 새벽제단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이 오롯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음·소망·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귀한 말씀이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 갈급한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글방 예담 발행

영적회복을 위한 비밀 열쇠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자 서정복 목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돌아봄의 시간
〈하나님의 미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언가 바로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항상 끼고 다니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끼고 주변을 돌아보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안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안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소에 강조했었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찬양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서 택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 4:8)
-머리말 중에서
구입문의 (063)625-0690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연합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김병완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안흥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지도위원

진등용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혁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주병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웅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현원 목사, 박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기연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오세환 목사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화 목사 **서기** 최순식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재무** 박인숙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박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부회장

사무총장
협동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후원계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척위원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천양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성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전동용 목사 (서소영교회)	김용택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단 목사 (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목 목사 (일산순복음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인한 목사 (정신교회)	김양인 목사 (복망제일교회)	임용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세길전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천양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임용재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세준 목사 (천안사랑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세현 목사 (평강교회)	백연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삼촌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수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이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영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형복한교회)	박홍달 목사 (은성사랑교회)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김현욱 목사 (형복한신교회)	김병주 목사 (순복음일방교회)	임혜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규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우광택 목사 (해미루대평교회)	최남성 목사 (동경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현 목사 (순복음아은교회)	이희순 목사 (진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의평화교회)	정관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스밍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별영교회)	배용관 목사 (순복음진원교회)	육보애 목사 (소망농아교회)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정회원	정회원																
																	
정예사 목사 (예수향기교회)	이형은 목사 (은혜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코로나19, 2차 피해 분석 보고서’

월드비전, 2차 피해로 3천만 명 아동 생존 위협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지난 4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피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강력한 통행금지로 약 2천 6백만 명의 신생아가 보건소 방문이 어려워 DPT3(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등 필수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 방문이 가능한 보건요원들도 턱 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예방접종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대부분 중단되어 영유아들의 질병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추가적으로 약 5백만 명의 아동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아동 제한으로 주민들의 생계가 악화되면서 급성 영양실조 아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촌 및 취약계층의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아동 사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편, '코로나19'와 더불어 말라리아로 인해 약 10만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정부의 방역 역량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되면서 말라리아 방역이 취약해졌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영양실조 기존의 감염성 질병으로 인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월드비전은 창립 70년 이래 최대 규모의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71개 국가 5,322,013명에게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보건 의료 지원, 식량 및 생계 지원, 아동보호 및 옹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전세계 난민촌과 취약계층에게 319,259개 마스크와 64,455개 손세정 용품을 전달했고, 총 4,342,256명에게 손씻기 교육 및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하이패밀리,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어린이날마저 집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놀이동산에 가기도 뭔가 개운치 않다. 올해 어린이날은 좀 색다르게 보내 수없을까.

어린이날을 맞아해 가족 친밀감 강화 프로젝트인 '2020년 가족 몸 놀이 축제'가 5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행복가정NGO인 (사)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김향숙)주최로 양평 숲속에 위치한 자연치유공간 파우지에서 개최된다.

해마다 돌아오는 어린이날이지만 올해는 특별하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히 안심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인데다 장기간의 코로나 집콕,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가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회복이다. 올해 어린이날은 코로나 19로 멀어진 가족친밀감의 회복이 선물이 되면 어떨까. 올해 4회째 개최되는 '2020 가족 몸 놀이 축제'는 가족친밀감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 엄마의 몸과 아이들의 몸이 만나 노는 놀이 축제다. 아빠 엄마의 몸은 최고의 놀이기구이며, 최상의 치유도구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참된 전도자는 누가되는가?



요즘 전도를 많이 이야기 하지만 전도자는 누가 되는지 아는 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성경에 근거해 누가 전도자가 되는지 7가지로 간략히 알아보고 특하고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첫째, 전도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한다. '갈릴리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마 4:18). 즉 베드로의 열심을 유심히 보시고 전도자로 선택하신 것이다. 눅 5:5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며, 밤새 물고기를 잡는 열심이 있는 자를 선택하신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깨닫는 자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요리까(요 6:68).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책이라고 해서 해주실 때 다 떠나갔지만 베드로만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고백한 것이다. 요즘 성경을 암송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많이 본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생겨서(히 4:12) 전도하는 데까지 지라야 죽은 암송이 아니고 살아

있는 암송이 되는 것이다.

셋째, 행함을 가진 자가 전도자가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복음을 전하여 양식되는 예수님을(요 6:51) 전해야 하고 옷 되신 예수님(갈 3:27)을 소개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줘야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넷째는 전도 못함을 회개하는 자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하니라'(마 26:75)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큰 핍박이 따르나(마 5:11-12). 그것이 두려워 전하지 못했을 때 진심으로 기쁨을 지는 회개자 있는 자를 예수님은 전도자로 부르신다.

다섯째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자가 참된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행 9:1-9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에게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죽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이심을 전파하니'(행 1:20)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자는 형식적인 전도로 끝나는 것이다.

여섯째는 하늘에 전도상급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섰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7-8) 이는 바울의 고백이다.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전도자가 된다.

일곱째 순교를 각오한 자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딤후 4:6) 관제는 피를 뿌리는 순교를 말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순교를 각오한 자가 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전도자는 많다. 그러나 생명을 바리면서 전도하는 자는 없다. 오늘날 예수님은 목숨을 담보한 전도자를 찾으시고 계신다. 필자와 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홀트아동복지회-KB손해보험, 미혼한부모 지원

‘365베이비케어키트’ 2020년도 대상자 모집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와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은 미혼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 물품을 지원하는 '365베이비케어키트' 2020년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의 지속적인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365베이비케어키트'는 미혼한부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동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응원 캠페인이다.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을 키트로 구성해 미혼한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위생용품을 추가했고 제품은 친환경 및 사회적 기업 물품으로 구성됐다.

참여대상은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미혼한부모이며 총 6개월간 꼭 필요한 양육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동대, 여호수아 장학금 수여식

203명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선발, 1억 2,180만원 지원



포항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호수아 장학금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셀프 수여식 형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행사 취지 소개 △격려사 △장학금 수여 △장학금 소개 및 주요 사항 안내 순으로 이뤄졌다.

여호수아 장학금은 한동대 재학생들 중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호수아 장학금은 학기 당 60만원씩 지급되며, 장학금 지급 기준 충족 시 다음 학기에도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여호수아 장학생들은 후원자와 1대1 매칭제 감사 편지와 기도 제목을 보내며, 희망자에 한해 연 1회 전체 만남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유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양치로 입안의 위생을 지키자!

500ml
20개들이 20,000원
500ml
30개들이 30,000원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0학년도 산·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님)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전북대 연구논문)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 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아무것도 아닌 자

2천년 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 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졌지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 가 아니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 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졌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령 받은 그 분의 자녀들도
'아무것도 아닌 자' 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엔
소망하며 인내 했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었음을
환한 미소로 안아 반기시며
존귀하고 보배로운 내 사랑하는자로다
이렇게 말씀 하시지요.

전도하기 위해 문 열린 집을 기뻐한다.
누구냐? 하고엄마가 묻는 말에현관에 있던 아들이 하는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대답을 한다.
어린 아이눈에 복음지 든 내가 '아무것도 아닌자' 로 보였다.
집에돌아와 그 묘한 마음을 적으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

사전선거 의혹 철저한 수사로 해소되기 바란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제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 20일이 다 되도록 일부에서 사전선거 개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일부 보수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의혹의 문제점은 서울·인천·경기 사전투표 득표율이 소수점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제21대 국선 시도별 정당별 득표현황(지역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서울(61% 대 34%), 인천(68% 대 33%), 경기(60% 대 34%)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치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표함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등의 추측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방증일 것이다. 다만 사전투표표를 포함해 모든 개표상황이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참관 하에 공정하게 관리된 마당에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칫 선거 불복의 나쁜 선례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에서 부정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무조건 일축하려 한다면 오히려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더 큰 불신과 분열로 확산되기 전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깨끗이 마무리되고 제21대 국회가 국민적 기대 속에 희망차게 출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설

북핵 폐기가 먼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불이행 원인을 유엔의 대북 제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심각한 본말전도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탓임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북핵결의안에 동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모르는체하고 남 탓만 하는 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판문점 선언이 유아무야 된 것은 북한 핵 야욕 때문인 것은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핵 개발만 포기한다면 당장이라도 제재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대북 제재야말로 북핵 폐기를 위한 가장 평화적인 해법이고 그레도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방법이야 아닐 수 없다.

당당하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면서 “제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각한 장애물을 놔두고 장애물 제거에는 무관심하고 장애물 제거 후에 이루어질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방한과 틀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총선 전 날엔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수호이 전투기까지 출격하며 위협을 가했다.

그런데도 김영정이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하자 청와대는 입을 꼭 다물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며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데 정권은 북한에 퍼줄 생각만 한다.

2018년 4월 27일 세계적 관심 속에 열린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돌아보면 북한 핵무기 폐기에 아무런 성과도 없다. 이후 열렸던 미·북 정상회담 역시 북한의 검은 속내만 드러냈을 뿐이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이나 핵·미사일 고도화 조치, 막발과 육설로 이 정부를 비난하는 것 등을 보면 오히려 더 철저히 배격하는 모양새다. 이런데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갖고 강릉-제진 철도 구간을 연결하는 국내 기반시설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승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성경은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고 경고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 4:27)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한국교회의 대책과 일치된 모습

21대 총선이 끝났다. 의석수로 보면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였다. 그야말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거대 여당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의석수에서는 5분의 3을 차지했지만, 범진보의 투표율은 52.94%(더불어시민당 33.35%, 정의당 9.67%, 열린민주당 5.42%, 민생당 2.71%, 민중당 1.05%, 여성당 0.74%)이다. 반면에 범보수는 43.71%를 차지해(미래한국당 33.84%, 국민의당 6.79%, 기독교유통합당 1.83%, 우리공화당 0.74%, 진박신당 0.51%) 실제적으로 보수의 세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거대 여당에 바란다.

‘독주’와 ‘독선’과 ‘독단’할 생각을 버리고, 모든 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며, 우리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입법 활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거대 여당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이번에 국민들이 준 기회를 남용하여 국민들을 실망

시킨다면, 아무리 지금은 거대 여당이라고 하여도 국민들의 심판은 곧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삼권분립이 모두 깨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독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 헌법’이 통과된 후 불과 6년 만에 하틀러 정권을 탄생시킨 역사적 비극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인들도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진보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므로, 당장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독소조항이 여러 개 있으며, 기독교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관과 활동을 제한하는 많은 법률들이 상정될 때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과 일치된 모습으로 방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취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YONSEI NANUM CLINIC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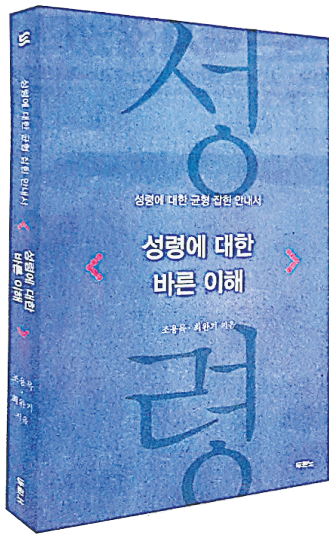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통일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 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써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